

# 에피쿠로스와 에피쿠로스주의에 대하여

Kunggom(kunggom@gmail.com)

2006년 9월 26일

## 1 에피쿠로스의 생애<sup>1)</sup>

### 1.1 에피쿠로스가 태어날 때부터 제자들을 만날 때까지(B. C. E. 341 - B. C. E. 307)

헬레니즘 철학의 세 축 중 하나인 에피쿠로스주의를 창시한 에피쿠로스(Epicouros)는 B. C. E. 341년 2월 4일 에게 해 동부에 위치한 사모스 섬에서 학원 교사인 아버지 네오클레스와 어머니 카이레스트라테 사이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스승이 그리스 초기의 철학자인인 헤시오도스의 ‘혼돈’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4세 때부터 3년 동안 이오니아의 도시 테오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당시 그의 스승은 원자론(原子論)을 주장한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Demokritos)의 제자인 나우시파네스(Nausiphanes)였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세 때 그는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2년간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플라톤에 이어 아카데메이아의 원장이 된 크세노크라테스와 당시 아테네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듯하다. 1년 뒤에는 사모스 섬이 마케도니아에게 점령당하자 콜로폰으로 망명해 있었던 부모와 다시 만난다. 그는 거기서 잠시 중단했던 철학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뒤 10년 동안은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아마도 이 시기에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확립되었을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32세 때부터 미틸레네·람프사코스 등지에서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 과정에서 헤르마르코스·메트로도로스·폴리아이노스 등 장차 그를 따라 아테네로 가 에피쿠로스학과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자들을 만난다.

### 1.2 아테네에 학원을 세울 때부터 죽을 때까지(B. C. E. 306 - B. C. E. 270)

B. C. E. 306년, 에피쿠로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학원을 세웠는데, 이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이 학원은 에피쿠로스가 구입한 집의 정원에 세워졌기 때문에 ‘호케포스(庭園學派)’라고 불렸다. 이때 아테네에는 플라톤이 세운 학원인 ‘아카데메이아(Academeia)’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원인 ‘리케이온(Lykeion)’이 있었다. 호케포스는 이 학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 학원 공동체는 제자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유지되었으며, 여성과 노예에게도 열려 있었다. 이 학원에서의 생활양식은 단순하고 검소했다. 평소에는 보리빵이 주식이었으며,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에피쿠로스가 나눠주는 콩을 먹고 연명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을

1) 에피쿠로스의 생애에 대한 자료는 [엠펙스 백과사전](#)(브리태니커)의 ‘에피쿠로스’ 항목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Epicurus’ 문서와,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두산동아)의 ‘에피쿠로스’ 항목에서 얻었다.

금과옥조로 삼아 외웠으며,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에피쿠로스가 쓴 여러 글들은 명쾌하지만 그다지 체계적이지는 않다. 아테네에 있는 학생들 및 다른 학파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중 몇몇은 학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교와 친분을 위한 것인 듯하다.

에피쿠로스는 72세 때 전립선염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 죽기 전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es Laertios)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상당히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하지만, 전해지는 것은 몇 통의 편지와 《주요학설(Kyriai doxiai)》과 《자연에 관하여(Peri physeōs)》의 일부분뿐이다.

## 2 에피쿠로스주의의 학설과 에피쿠로스학파

### 2.1 배경

#### 시대적 배경<sup>2)</sup>

B. C. E. 431년에서 B. C. E. 404년까지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진 이후, 눈부신 문화를 이루었던 그리스 문명은 폴리스 간의 끝없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기를 맞는다. 게다가 폴리스 내부에서도 심화된 빈부격차로 인해 시민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그리스 문명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결국 그리스는 B. C. E.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마케도니아에 패하고 만다. 그 결과 그리스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다.

삶의 터전인 폴리스와 정치적 자유를 잃은 그리스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함께 잃어버리고,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철학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처세 철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시기의 철학을 두고 ‘개인적인 안심입명(安心立命)만을 추구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영향을 준 사상들<sup>3)</sup>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영향을 준 학설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후기 키레네 학파의 윤리학설이 그것이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원자(atomon)’가 모여서 세상 만물을 형성하며, 물질의 변화는 원자의 배열 및 결합 상태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에피쿠로스주의의 자연학의 기반이 된다.

키레네 학파의 주요 주장은 ‘순간의 쾌락이 선(善)의 기준이며, 훌륭한 삶은 쾌락의 효과를 자아내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는 것이다. 후기 키레네 학파의 학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2) 에피쿠로스주의가 나오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Epicurus’ 문서와, 개인 홈페이지 ‘철학과 삶(<http://sang1475.com.ne.kr/>)’의 ‘서양철학사’ 항목에 있는 ‘에피쿠로스(Epikuros) 쾌락주의’ 문서에서 얻었다.

3) 에피쿠로스에게 영향을 준 사상들에 대한 자료는 엠파스 백과사전(브리태니커)의 ‘에피쿠로스’ 항목과, ‘데모크리토스’ 항목과, ‘키레네 학파’ 항목에서 얻었다.

## 2.2 에피쿠로스주의의 자연학<sup>4)</sup>

에피쿠로스는 불행의 원천 중에는 2가지 큰 두려움, 즉 신(神)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윤리학의 목적과 수단을 찾기 위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학을 전개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작고 단단하고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원자(原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신(神)이 존재한다면 신(神) 또한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 즉 물질적인 존재여야만 한다.

원자들은 어떠한 시초도 없이 항상 공간 안에서 자신의 무게에 의해 제각기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자연운동’이다. 그런데 이 원자들 중 어떤 것은 완전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유운동’이다. 자유운동을 하는 원자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던 다른 원자와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이 ‘강제운동’이다. 이 원자 사이의 충돌은 또 다른 충돌을 부르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충돌은 모든 원자들이 여러 덩어리로 뭉쳐 세상의 만물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에 의해 비롯된 목적성이 있는 질서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의 충돌이 빚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신 또한 원자로 이루어졌고, 인간의 운명이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며, 다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존재일 뿐이므로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이루는 것도 원자인데, 육체를 이루는 원자와 영혼을 이루는 원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큰 원자는 육체를 형성하는 원자이며, 작은 원자는 감각과 사유, 정신 활동을 형성하는 원자, 즉 영혼을 형성하는 원자라고 보았다.

만약 사람이 죽었을 때는, 육체와 정신을 형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는 어떠한 감각이나 정신 활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 맞서 에피쿠로스는 만일 쾌락이 매 순간마다 완전할 경우, 시간이 무한하다고 해서 유한한 시간보다 더 큰 쾌락이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불멸에 대한 욕망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3 에피쿠로스주의의 윤리학<sup>5)</sup>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은 쾌락(快樂)이며, 학문이나 도덕은 모두 쾌락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런 쾌락은 감각을 통해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적 쾌락’과, 모든 욕망을 끊음으로서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인 ‘정적 쾌락’으로 나뉜다.

동적인 쾌락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결코 완전하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적인 쾌락은 영속적이며 고통을 받을 일이 없는 궁극적인 쾌락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쾌락주의자는 정적인 쾌락을 취해야 하는데, 이 쾌락은 잠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 무욕(無慾)의 상태, 즉 아타락시아(ataraxia, 不動心)에 다다르면 얻을 수 있다.

4) 에피쿠로스주의의 자연학에 관한 자료는 **엠피스 백과사전**(브리태니커)의 ‘에피쿠로스주의’ 항목과, ‘데모크리토스’ 항목과, ‘루크레티우스’ 항목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Epicurus’ 문서와, 개인 홈페이지 ‘철학과 삶 (<http://sang1475.com.ne.kr/>)’의 ‘서양철학사’ 항목에 있는 ‘에피쿠로스(Epikuros) 쾌락주의’ 문서와, 《21세기 원색 세계 대백과사전》(태극출판사, 1999) 21권 60~61쪽의 ‘에피쿠로스’ 항목을 통해 얻었다.

5) 여기서 참조한 자료는 각주 4와 동일하다.

아타락시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여야 한다. 또 이성(理性)을 통해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넘는 욕망을 지혜롭게 억제해야 한다. 정치나 공공 생활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친구들과 즐겁고 유쾌하게 교제하며 우정을 쌓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플라톤의 4주덕(지혜, 용기, 절제, 정의)을 실천해야 한다.

## 2.4 에피쿠로스 사후의 에피쿠로스학파<sup>6)</sup>

B. C. E. 1세기에는 에피쿠로스의 학설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루크레티우스(Lucretius)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전해지는 에피쿠로스주의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이 책에서 나온 것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약 600여 년간 지속되었으나 로마 제정기 이후에는 비사회적인 자세 때문에 차츰 세력을 잃었고, 기독교가 보급된 이후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에피쿠로스학파의 학설이 다시 발굴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과학자인 피에르 가상디에 의해서였다.

---

6) 에피쿠로스 사후의 에피쿠로스학파에 관한 자료는 [엠펙스 백과사전](#)(브리태니커)의 ‘에피쿠로스’ 항목과, ‘루크레티우스’ 항목을 통해 얻었다.